

[가정축제 Gift - 인터뷰] “주님 주신 용기로 다가섭니다”

신영각, 문경자(서대문 총정다락방) / 2003 / 페이지 수: 1

오랜 순장생활로 치유할 부분이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참석했는데 뜻하지 않은 수확을 거두게 되어 기쁘다고 말하는 신영각, 문경자 부부.

이기복교수의 강의를 듣고 “자녀들을 칭찬하고 싶었던 것을 솔직히 말해주고, 자녀들에게 잘못했던 것을 용기 있게 사과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고 말하는 문경자씨와 집으로 돌아가 자녀에게 축복기도를 해주자 딸이 웃음을 터트렸다며 흐뭇한 미소를 지으시는 신영각씨. “그동안 마음은 있어도 표현하지 못하고 ‘손주나 낳으면 해줘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자녀들에게 이제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며 자녀에게 사랑을 표현하기 했다고 말하며 신영각씨와 문경자씨는 서로 씩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용감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하 목사님의 말씀처럼 용기가 없어서 아무 것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에 있는 것을 잘 표현 하지 못했지만 이번 축제로 가정과 순원들에게 표현하고 다가설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며 너무 행복하고 큰 이익이 된 거 같다고 대답했다.

신영각, 문경자 부부는 다시 치유 받고 돌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도울 수 있는 대열에 설 수 있다는 자신감을 느꼈다면서 축제에서 느끼고 얻은 비전으로 가정과 순원에게 돌아가 용기 있게 주님 사랑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 출처 : 온누리신문